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 교육을 생각한다 | 문화와 창조 | 도시와 삶

반 고흐·키스 해링과 만나는 창조적 인권도시 광주



이무용

인권도시 광주의 디자인은 시민들과 소통이 가능한 거리, 일상, 커뮤니티에서 출발해야 한다.

“

인권도시 광주의 디자인은 시민들과 소통이 가능한 거리, 일상, 커뮤니티에서 출발해야 한다.

”

한때 전국적으로 문화도시의 열풍이 불더니 이제는 창조도시가 붐이다.

행복한 삶은 문화적 삶에서 온다. 한마디로 욕망, 표현, 소통의 삶이다.

창조성의 핵심요소로 4T, 즉 관용(Tolerance), 재능(Talent), 기술(Technology), 융합(Trans)을 거론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인자, 인권도시 운영철학으로 '창조적 빛의 도시, 광주 라이트노믹스(Lightnomic)'를 제안하고 있다.

어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빛이다. 이 빛은 루미날리에나 불꽃축제 같은 화려하고 스펙터클한 테크놀로지의 빛이 아니라, 네덜란드 출신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결핍과 갈망의 영혼의 빛이다.

그를 통해 삶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삶이 되는 행복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문화를 꽃피우는 빛이 되어야 한다.

그를 통해 삶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삶이 되는 행복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문화를 꽃피우는 빛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인권도시 디자인으로 '길 위의 인권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해링은 도시의 거리, 지하철역, 클럽, 미술관, 병원에 벽화를 그려며 인종차별 반대, 반핵, 동성애자인권옹호, 에이즈퇴치, 어린이 등 사회적 이슈들을 길 위에 기록하였다.

그의 그림은 친근하다. 단순한 사립디자인으로 모든 것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예술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통해 살아나며, 대중과의 그러한 접촉이 없는 예술도 없다고 그는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도시 광주의 디자인은 시민들과 소통이 가능한 거리, 일상, 커뮤니티에서 출발해야 한다.

민선 5기의 광주시정의 100대 과제를 살펴보니 인권부문이 100번째에 선정되어 있다.

(전남대 문화평론대학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서민가계 육체는 공공요금 인상 신중해야

서민 연료인 연탄값이 9월부터 오르거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시가만 문제일 뿐 더더군다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연탄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연탄 보조금을 2020년까지 폐지해야 하므로 연탄값을 원가에 맞춰 올리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연탄값이 하반기 물가 오름세의 선봉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들도 6·2 지방선거 후 쓰레기 봉투에서부터 상·하수도, 버스·택시 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공요금을 낮다

튀 올리거나 내년 상반기에는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해 그동안 인위적으로 억누르다가 해운 공공요금 현실화의 불가피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서민생활은 경제 회복세와는 달리 소득은 늘지 않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 등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위기의 지방재정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들어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와 일부 구청들이 긴급 재정에 들어갈 정도다.

결국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중앙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

광주지역 자치구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5개 구청의 부채 예산은 모두 14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자치구들은 빚도 내기 어려운 처지다.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방경기 부양을 위해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늘리도록 독려한데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지자체 수입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2006년 브라질대회를 끝으로 현역에서 물러난 슈마허가 3년동안 떠나 있던 F1 머신으로 다시 돌아와 개인 통산 여덟번째 챔피언 타이틀 도전에 나선다.

無等鼓

스피드를 겨루는 최고의 자동차경주 대회가 포뮬러 원(F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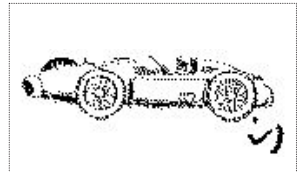
모든 소프트웨어의 중심이 사람이듯 F1도 드라이버가 가장 중요하다.

가 전세계를 통틀어 12개 팀 2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F1 드라이버의 1인당 부가가치를 알 수 있다.

이런 F1 드라이버의 전설이 미하일 슈마허다. 독일 출신인 슈마허는 F1의 황제로 불릴만큼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그의 재기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생소한 F1의 흥행 보장과 함께 그의 영향에 따라 향후 한국인 최초의 F1 드라이버 탄생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하일 슈마허



그의 재기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생소한 F1의 흥행 보장과 함께 그의 영향에 따라 향후 한국인 최초의 F1 드라이버 탄생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F1 드라이버의 전설이 미하일 슈마허다. 독일 출신인 슈마허는 F1의 황제로 불릴만큼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런 F1 드라이버의 전설이 미하일 슈마허다. 독일 출신인 슈마허는 F1의 황제로 불릴만큼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런 F1 드라이버의 전설이 미하일 슈마허다. 독일 출신인 슈마허는 F1의 황제로 불릴만큼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2006년 브라질대회를 끝으로 현역에서 물러난 슈마허가 3년동안 떠나 있던 F1 머신으로 다시 돌아와 개인 통산 여덟번째 챔피언 타이틀 도전에 나선다.

오른 10월 22일부터 3일간 영암에서 열리는 코리아그랑프리(한국대회)가 오늘로 꼭 100일을 남겨두고 있다.

그의 재기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생소한 F1의 흥행 보장과 함께 그의 영향에 따라 향후 한국인 최초의 F1 드라이버 탄생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F1 드라이버의 전설이 미하일 슈마허다. 독일 출신인 슈마허는 F1의 황제로 불릴만큼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런 F1 드라이버의 전설이 미하일 슈마허다. 독일 출신인 슈마허는 F1의 황제로 불릴만큼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런 F1 드라이버의 전설이 미하일 슈마허다. 독일 출신인 슈마허는 F1의 황제로 불릴만큼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런 F1 드라이버의 전설이 미하일 슈마허다. 독일 출신인 슈마허는 F1의 황제로 불릴만큼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런 F1 드라이버의 전설이 미하일 슈마허다. 독일 출신인 슈마허는 F1의 황제로 불릴만큼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중고칼럼



시몽

'업전근성'(業錢根性)이란 말을 우리는 흔히 듣는다. 이 말이 우리 민족을 아우르는 말이라는 것쯤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

주기가 물결치고 있다. 불과 수주일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다녀온 아이들이 그 새 혀가 꼬부라져서 어머니 나라의 말을 잘 못하더라는 얘기에선부터 구미의 경박한 벨로디에 몸을 비트는 젊은 군상들, 순제 카레이스키 따위는 눈에 도차지 않는다는 젊은 아가씨들, 코 큰 사람들의 것을 덮어 놓고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흥내 내는 것은 옛날 중국을 사대하던 것보다 한 술더 더러운 일이다.

미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자들은 이미 한국인이 아닌 것 같다. 근대국가 100년 만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해답이 보인다. 국민 소득 2만 달러 시대만을

타락한 행동 윤리

정도로 지지리도 못사는 우리가 여북하면 이렇듯 자학과 자기모순을 즐기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한심하기만 하다.

자랑할 만한 일이 못된다.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염치를 알고 절의를 중하게 여겨 불의의 것이라면 천성만이라도 초개처럼 여기고 고사리를 캐어 먹다 굶어서 죽을망정 불의의 무리와 타협하지 않는 절개라도 있었다.

우리는 근대화가 되면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싫증이 나도록 배우고 들어왔다. 주권은 어디에 있으며 선거란 무엇이며 남의 자유와 권리는 존중해야 한다는 등 해아릴 수 없을 만큼 민주주의의 교조를 익혀왔다.

그러나 이처럼 민주주의의 원리를 반세기 가 넘는 세월이 지나왔는데도 한국은 아직까지도 군부독재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진실로 한국인에게 업전근성을 버리지 못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선진문화국민은 약속될 것을 기대해 본다.

(장성 백양사 주지)

기고



천득염

새 광주시장이 취임하면서 내놓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광주교도소를 민주인권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발표는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광주교도소를 명물 호텔로

교도소를 호텔로, 화력발전소를 전시관으로, 군수공장을 문화창조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한 좋은 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꿈꾸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암스테르담의 로이드 호텔은 1989년까지 감옥으로 사용됐던 건물인데 이후 10년간 예술가와 건축가, 디자이너들을 위한 작업 공간으로 암스테르담 시가 대어했으며 다시 호텔로 개조하는 등 세 번의 변화과정을 겪었다.

따라서 광주 교도소를 철거하여 주거 시설이나 물류 센터, 공원을 추진하기보다는 교도소 공간을 보존하고 리모델링을 통하여 민주인권센터와 함께 호텔을 포함한 복합문화단지로서의 새로운 가치와 기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제안해 본다.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어린이들에게 자전거 안전수칙 가르쳐야

얼마 전 집 근처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 2명이 서로 비켜주려다 충돌하는 것을 봤다. 골목길이라고 해도 충분히 교행해서 비켜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골목길이었는 데서 마주 달리다가 미처 여질 겨를 없이 그냥 부딪치는 듯 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자동차와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 같은 교육을 제대로 배웠다면 서로 약속된 통행방식을 지켜 부딪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학교나 부모들이 평소 애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해주지 않으면 예방의 식을 고취시켜줄 필요가 있다.

학교나 부모들이 평소 애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해주지 않으면 예방의 식을 고취시켜줄 필요가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